

초등 5~6학년
독후활동지 (학생용)

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



말하지 않으면

글 윤해연 | 그림 전명진

스폰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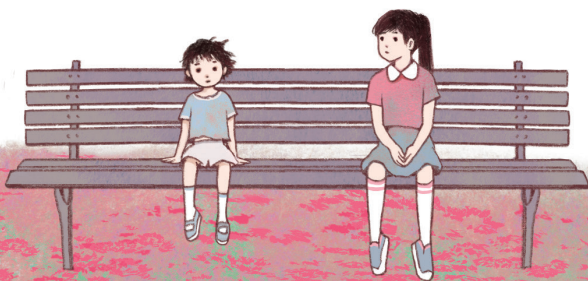


말하지 않으면

- 글: 윤해연
- 출판사: 스폰북
- 분량: 168쪽
- 키워드: #사춘기 #가족 #대화 #소통
- 그림: 전명진
- 정가: 16,000원
- 대상: 초등 5~6학년

책 소개

가족 여행을 가던 중 덮쳐 온 교통사고. 정신을 차려 보니 가족들은 사라지고 처음 보는 아이가 눈앞에 서 있다. 정체를 알 수 없는 아이는 가족을 구하려면 자기가 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.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이고, 가족들은 어딜 간 걸까?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어딘가에서 가족들을 구하기 위한 열두 살 나영이의 기억 여행이 시작되었다. 나영이는 아이와 함께 기억의 공간을 거닐며 가족과의 시간을 되돌아보고, 그 과정에서 미처 몰랐던 가족들의 진심을 알게 된다. 《말하지 않으면》을 통해 사춘기에 겪는 가족 간 단절의 원인과 그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자.





독서 전

책 읽기 전 : 표지 살펴보기

《말하지 않으면》의 앞표지와 제목을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을 써 보세요.



번호	앞표지와 제목을 보면서 드는 생각
1	
2	
3	



독서 전

책 읽기 전 : 표지 살펴보기

《말하지 않으면》의 뒤표지에 쓰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“문제를 풀면 가족을 구할 수 있어.”

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 언니가 사라졌다.

그리고 나타난 의문의 아이.

이 아이는 대체 누구이고, 가족들은 어딜 간 걸까?

아이와 나의 게임이 시작되었다.

이상하고도 불편한 게임, 지금 내게 선택지는 없다.

오로지 풀어야 할 문제만 있을 뿐.

나는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.

엄마, 아빠, 언니를 구하기 위해.

“직접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.

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다정한 언어가 있다.”

— 작가의 말 중

1 이 책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?

.....
.....

2 뒷글의 내용을 바탕으로,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상해 보세요.

.....
.....



독서 중

책 속으로

《말하지 않으면》의 주인공 나영이에 관해 알아보아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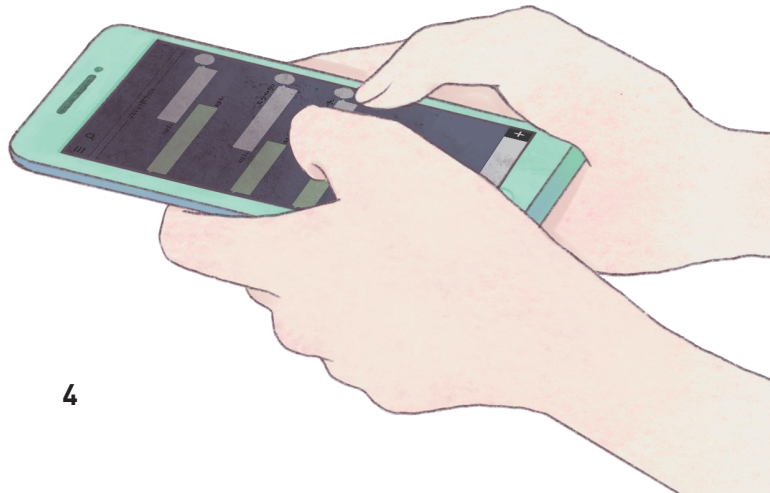
1 나영이가 자기 분신처럼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?

- ① 인형
- ② 립밤
- ③ 텀블러
- ④ 스마트폰

2 다음 글을 읽고 나영이의 마음을 추측해 보세요. 나영이는 왜 스마트폰 속 세상을 좋아하게 되었나요?

내 생활의 중심은 휴대폰이다. 휴대폰 속 유튜브, 인스타, 쇼트 폼, 릴스에서 재미를 찾았다. 그곳은 아무 생각 없이 날 맡겨도 죄책감이 없다. 수많은 영상과 대화는 심각하지 않아 부담이 없고 즐거웠다. 재밌는 순간이 또 다른 재미를 가져왔다. 그곳은 날 외롭게 하지 않았다. 불편한 상황이 만든 마음의 틈을 메꿔 주었다. 나는 그곳에서 위로를 받았다. 그러니까 내가 딱 원하던 세상이었다.

- ① 혼자가 되고 싶어서
- ② 부담스럽지 않고 원하는 것만 있어서
- ③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
- ④ 가족과 더 친해지고 싶어서





《말하지 않으면》의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.



1 나영이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아이가 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. 다음 중 나영이가 떠올려야 할 기억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?

- ① 누군가의 눈
- ② 누군가의 손
- ③ 누군가의 발
- ④ 누군가의 목소리



2 언니가 나영이가 있는 화장실에 가려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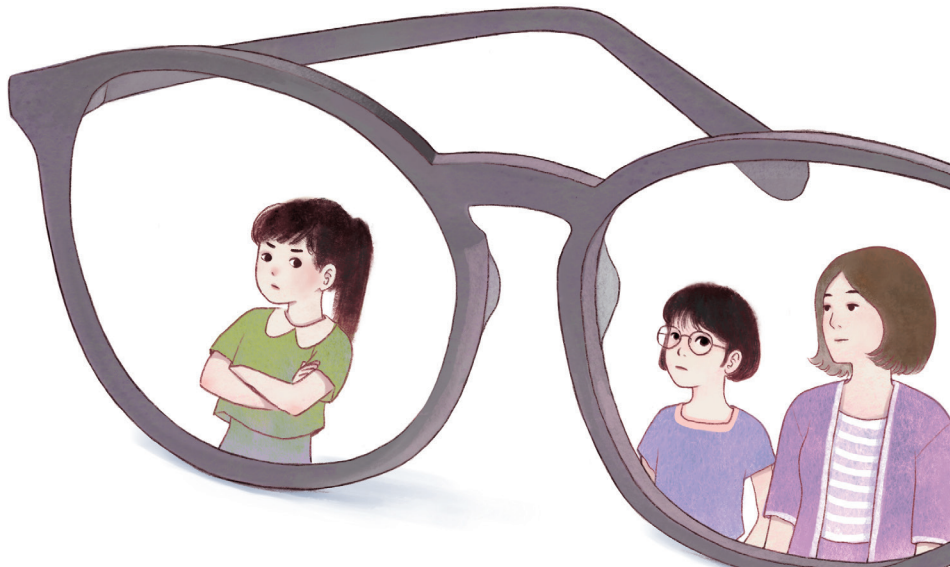
- ① 좁은 곳을 무서워해서
- ② 나영이와 싸우고 싶어서
- ③ 거실 화장실이 더 깨끗해서
- ④ 안방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어서

3 미라의 파우치를 가져간 사람은 누구였나요?

- ① 아빠
- ② 언니
- ③ 그루
- ④ 엄마

4 다음 중 나영이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?

- ① 쌀쌀맞은 엄마
- ② 짜증 나는 엄마
- ③ 나밖에 모르는 엄마
- ④ 바쁜 엄마





독서 중

책 속으로

가족과 함께했던 잊지 못할 행복한 순간이 있나요? 언제였는지 그 순간을 떠올려 적어 보아요. 그리고 가족에게 행복했던 순간을 말해 보아요.





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? 혹시 나영이처럼 직접 말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긴 적이 있나요? 여러분이 느낀 바를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.

[illegible]